

대장경 새긴 불심 다시 피어나네

불교문화 체험기행

10월

보문사·선원사지·무애원

단군신화와 대장경 판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 강화도. 호국 불심이 숨쉬고 있는 성지 강화도의 불교는 새 세기 새불교의 틀을 다지고 있었다. 18일 역사 속에 깃든 민족의 숭고와 혼, 염원이 담긴 성지를 찾아 나선 불교문화 체험기행단은 보문사와 선원사지 그리고 무애원을 찾아 어제를 토대로 내일을 빛고 있는 강화불교를 배우고 돌아왔다.

보문사 참배객 끊이지 않는 관음성지

선원사 대장경제작 현장찾기 발굴작업

무애원 '마음빛기공부' 설봉도에수련원



선원사지에서는 고려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찾기가 핵심이다.

대장경 판각성지 선원사지

16억 투입 유적정비사업 한창

고려대장경 판각성지로 알려진 강화 선원사지. 동고에 향방하기 위해 고려 고종 19년(1232년)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후 당시 최고 집권자였던 최후가 대동항쟁의 정산적 지주로 또 자신의 임할로 향했다. 선원사는 <불고한백>을 펴냈던 고려 말의 유학자 최해(1287~1340)의 말대로 승주 송광사와 함께 고려 2대 사찰로 손꼽힌다. 주지 성원스님이 당시 선원사지 발굴작업을 하는 동안 유물전시관에 사진복사해 모신 선원사 초대주지 진명국사와 선원사를 거쳐간 송광사의 16국사 가운데 네분의 영정이 그 당시

고려말 2대사찰 손꼽혀

성원스님 새성지 복원 발원

유물관 완공·1차발굴 완료

선원사의 규모와 명성을 가히 짐작케 한다. 사적 제258호로 지정된 3700평의 선원사지가 새긴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최근 주지 성원스님에 의해 선원사 복원불사가 이뤄지면서부터다. 선원사 복원불사는 팔만대장경 대장도감의 위치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도장도감이 설치된 곳이 현재의 선원사지라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성원스님은 단순히 선원사지 복원에만 있지 않다. 스님은 "팔만대장경은 그 어떤 민족문화재 보다는 호국의 열이 담긴 우리 문화의 정수임을 감안할 때 고려 대장경의 제작과 선원사의 복원불사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며 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새성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강화군은 올해부터 정부가 2차 5개년 유적정비사업으로 강화문화권을 집중적으로 복원 정비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2002년까지 선원사지에 16억3천3백만원을 전액키로 했다. 동국대 학술조사단에 의해 1차 발굴조사를 완료한 선원사는 유물전시관을 마련하고 출토된 와당 등 관련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대웅전은 기초공사가 마무리돼 2000년에는 완공될 예정이다.

기행단을 태운 차는 번잡한 도심심을 벗어나 서해 바다의 비릿한 냄새를 머금은 바람을 맞으며 보문사(주지 원종) 입구에 도착했다. 보문사가 있는 나카산은 그다지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웅장한 수림에 둘러싸여 있지도 않은 그야말로 아늑한 곳이었다. 남해 보리암, 양양 홍제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인 보문사는 관음과 나한신앙에 관한 유적 유물이 많다. 특히 절 위쪽 눈발 바위 아래 새겨진 마애관음화상이 그렇고 나한의 신통력이 어린 나한 석실이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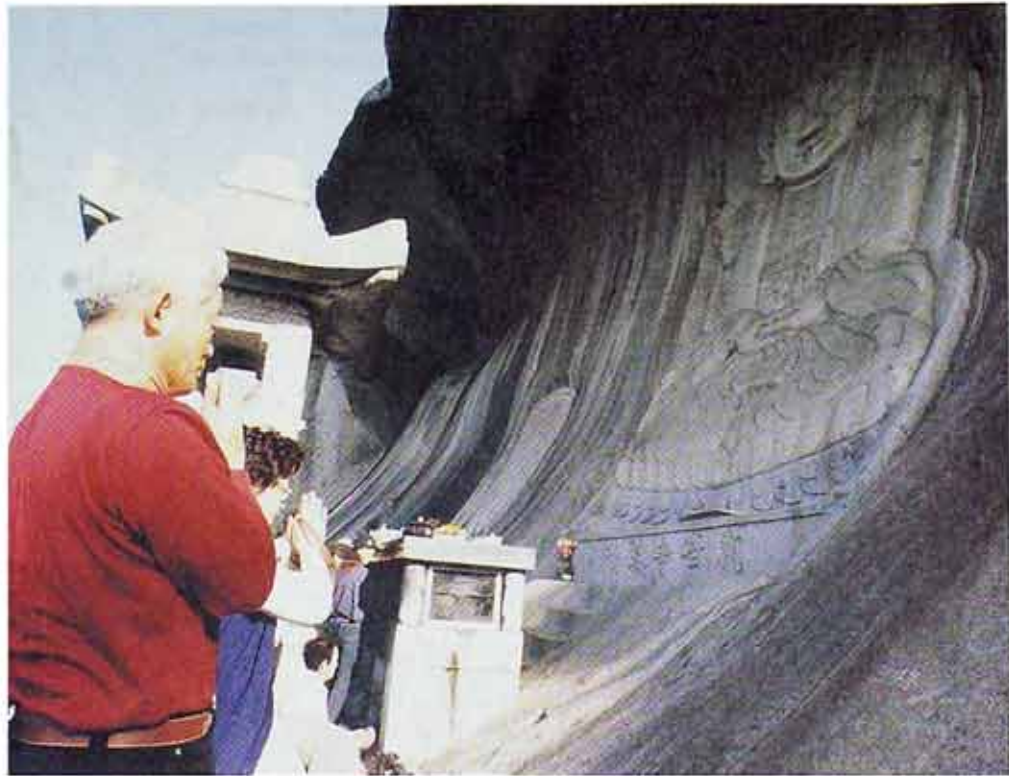
천연동굴 나한 법당

석굴법당 입구에서 나한존자가 앉아 불자들을 맞는다. 어부들의 꿈에 나타나 22개의 돌덩이를 봉안하라고 일러준 그 노승이라고 한다. 석실 전면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미륵보살과 재화갈라보살(연등불)이 협시한

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그 좌우로 관음보살, 18성중이 모셔져 있다. 천축국에서 파내려온 불보살을 견주 봉안한 어부들의 불심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석굴법당에서 탐심(貪心)을 녹인 후 암벽을 깎아지른 듯 우뚝 선 마애관음보살을 찾아 돌계단을 한층 한층 오르니 기도는 더욱 간절해진다. 투박하고 넓은 가슴에 굳자가 새겨져 있어 장엄기만한 관음보살상은 이웃사랑, IMF 극복, 밝은 사회, 맑은 국토, 통일영원을 다 품으셨는지 우리의 미래를 기억하고 있었다. 보문사의 풍모와 관음보살의 자비심을 가슴에 아로새긴 기행단은 발걸음을 선원사지로 옮겼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채, '팔만대장경 판각성지'라고 쓰여진 표지판이 서 있는 선원면 선원사. 발굴되는 반터지만 불심을 피워냈다. 주지 성원스님의 3차례에 걸친 천일기도에 힘입어 대장경 판각성지 선원사지 확장을 위한 발굴이 시작되었



선원사 주지 성원스님이 선원사지 유물전시관에서 고려대장경 판각의 역사와 과정, 선원사 사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성원스님이 도감리 우물에서 찾아낸 고려시대 차맛물.



오묘한 모습이 오히려 사민적인 마애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체험기행단은 국난극복, 밝은 사회를 기원했다.

다. 성원스님이 판각성지 찾기에 임력을 세운 3천7백평은 선원면 그리고 대장도감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감리가 향몽을 위해 불심으로 경을 관각했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속살을 드러낸 것이다.

우물서 차맛물 발견

이미 도감리 마을 우물에서 차(茶)맛물을 찾아낸 주지스님은 확신에 차 있다. 발굴터 옆에 새로운 선원사를 창건하겠다고, 그러나 욕심내지 않는다. 금강에 못하면 내생에 다시 할 것을 발원하면서. 선원사지에서 30여분 거리에 있는 전통문화 도예 연수원 무애원, 무애원

은 속진의 태와 번뇌를 태워낸 설봉스님의 작품들이 커켜어 쌓인 돌담과 어우러져 있었다. "흙은 빛은대로, 누르는대로 자국이 드러납니다. 거짓을 모르지요. 흙을 대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때묻은 인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무한한 창조 역량을 지닌 불 앞에 선 인간은 초라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는 겸허함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자기를 빚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반조해 '참나'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봉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기행단은 도예 실습에 들어갔다.

흙을 빚는 설봉스님의 손놀림에선 어느새 이 혼란의 시기를 극복하고

한년의 불심을 이어 21세기를 새로운 희망으로 맞으려는 간절한 정성이 배어 있었다.

'참나' 찾는 도예 실습

흙을 반죽해 얇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짐계손가락으로 꼬집듯이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 동안 기행단은 '나'라는 존재마저 잊고 도예빚기에 여념이 없었다. 설봉스님의 도예는 불과 유약의 조화 속에 자연을 말하고 노래한다. 살림이 어렵지만 작품을 탐내는 일본인 수집가의 유혹을 거절한 설봉스님. 기행단은 그 정신을 가슴에 담고 돌아왔다.

글=도물선 기자(psdo@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a.com)



도물과 도자기로 가건물을 정열한 무애원 전시장



'흙을 빚는가, 마음을 빚는가.' 설봉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도자기를 빚고 있는 불교문화 체험기행단. 짧은 시간이지만 욕심의 걸피어 먼지를 배웠다.

성·동·석·재·불·사·공·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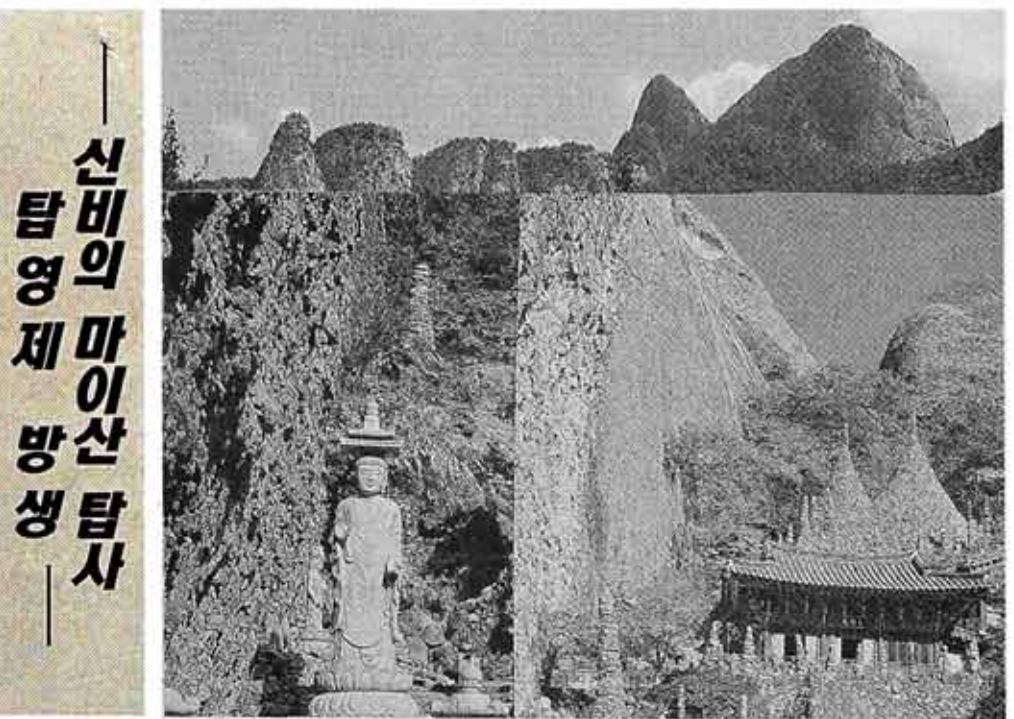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20여년 동안 쌓은 섬세한 조각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작품조성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고승대덕 큰스님 및 불자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표 김성표 합장



성동석재불사공예사 전 화 : 0357)531-8736 호 출 : 012)321-6044
경기도 포천군 영죽면 성동 5리 822-2 팩 스 : 0357)531-5549 핸드폰 : 011)284-510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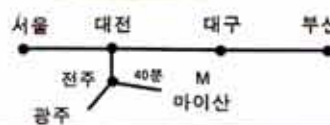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찾아오시는길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